

# 오래가게 이야기 - 백년가게를 꿈꾸는 이발관



스토리 살아있는 전설 - 이발관  
스토리발굴 김남희



**이**발소는 머리카락을 다듬거나, 염색하는 장소이며 흔히 이용원, 이발관, 이용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출처 - 위키백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오래가게를 찾아 기록하는 다섯 번째 오래가게는 영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시민들의 용모, 외모를 단정하게 해준 이발관이다. 영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되는 동국이발관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상섭입니다.

Q2 이발관을 하신지 몇 년 되셨나요?

올해로 63년이 되었네요

Q3 이발은 몇 살 때 배웠나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17세 때 안동에 이발  
고등학교가 있어서 1년 영주에서 통학하면서 이발을 배웠어요.

Q4 가게 이름이 동국이발관인 이유가 있나요?

이발고등학교에서 이발을 배우고 영주로 와서 동국이발관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22세 때 가게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 이름은 인수할 때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Q5 손님들은 어디에서 오는 분들이 많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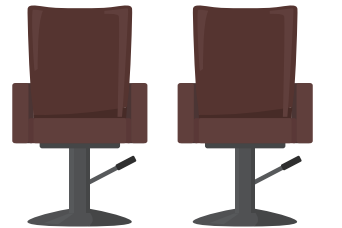
부석, 이산, 봉화에서도 많이 왔고  
지금도 50년 이상 단골손님 많이 아요.

Q6 예전에는 이발은?

이발할 때 가위와 바리깡을 사용했고 이용료는 20, 30원 정도  
했어요. 손님들이 면도도 많이 했는데 칼을 숫돌에 갈고  
피데(가죽)에 갈아 날을 세워 거품을 칠하고 수염을 깎았어요.  
예전에 쓰던 면도칼은 지금도 가끔 사용하고 있어요. 염색은  
염색약을 강통에 넣고 연탄불,곤로에 끓여서 사용했어요.  
요즘은 짜서 쓰는 편리한 염색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발관 내부 모습〉



〈백년 수납함〉



〈50년 넘은 돈통〉



Q7 예전에 불고데도 했다던데?

예전에는 연탄불에 고데기를 불에 달궈서 서 있는 머리카락을 눌렀지요. 그 후 드라이기가 나와서 드라이기를 사용했어요. 예전에 쓰던 드라이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Q8 가게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전에는 명절과 특별한 날 빼고는 날이 새면 문 열고 어두워지면 문 닫았어요. 예전에는 가정을 지키며 먹고 살아야 했기에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은 매주 수요일 쉬고 있어요.

Q9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나요?

한복 치마에 주머니를 달아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게 만드니 편하고 좋다며 오셨던 고객들이 또다시 방문해 주니 한복을 한 보람이 있었어요. 한복을 하며 2002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대창의로 장려상, 2004년 김삿갓 도포로 입선, 대한민국 한복 침선 문화상품 공모대전에 2006년 은상, 2008년 특선 등 여러 상도 받았어요.

Q10 나에게 이발관은?

나의 전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이발이었고, 가정을 지키며 먹고 살아야 했기에 열심히 살았어요. 이발 기술을 배워 지금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잘 배웠다고 생각해요.

Q11 앞으로 바람이 있나요?

평생을 함께해 고맙고 애착이 많이 갑니다. 건강하고 집안이 평안 했으면 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발관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상〉 오래된 면도기, 바리깡, 가위, 하)면도거품기, 예전 조리개

〈상〉 오래된 드라이기 하)세면대

아름다운 세상 속,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한가지 꿈을 향해 달려온 이야기가 기억되기를 바란다. 오래된 것들을 기억하며 추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세대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 오래가게를 방문해서 추억도 회상하며, 오래가게가 가진 매력을 느껴보기를 바라본다. 또한 이발관이 오래 오래 운영되어 백년 가게가 되기를 바란다.